

“출생아 건강보험 사업자 선정기준 뭐냐”

행정사무감사 정종근 시의원 사업자 선정문제 제기 포천시, 만기 환급형과 보장기간 등 유리한 조건 고려

지난 28일 계속된 포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종근 시의원은 출산장려 정책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생아 건강보험 사업자를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출생아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기까지 모 보험회사와 조례제정 등 모든 것을 상의하고 정작 사업자 선정할 때는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1차 사업자 선정위원회와 제2차 선정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뭐냐”고 질문하고 “사업자 선정위원회 명단을 보면 7명 가운데 4명이 공무원이라면 자칫 공정성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제2차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집계표에는 특정위원의 경우 점수가 무려 26점까지 벌어지는 편향된 심사가 있었다”면서 “이것은 평가표 중 제안서의 배점기준이 너무 편

차가 커 객관성이 결여된 탓이며 심사한 접수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배제하고 집계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미환 가족여성과장은 답변에서 “출생아 보험을 시행하기까지 모업체와 숙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2006년3월 사회복지과에서 가족여성과로 업무담당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또 장 과장은 “1차 공모 당시 K업체 단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단독신청은 경쟁입찰 원칙에 어긋나 심의가 불가해 부결했다”면서 “2차 심의때는 2개업체가 응모해 이같은 H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만기 환급형과 보장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종근 시의원은 “포천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은 시립이 아닌데도 임의로 ‘시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시립

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데 객관적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과 오각균 과장은 답변에서 “포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시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내부결재를 받아 시행한 것”이라며 “원칙으로 가야한다. 연말까지 시정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에 대한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3일까지 계속된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2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9건 등 111건에 대해 자료요청을 해 놓은 상태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월4일부터 5일까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 조례 등 안건심의를 실시한다. 7월6일부터 9일까지는 2006



포천시에 대한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3일까지 계속된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2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9건 등 111건에 대해 자료요청을 해 놓은 상태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의 건,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한탄강댐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한다.

또 7월10일과 11일은 2007년도 상반기 시장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12일 2007년도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및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의, 2006년도 예비비 승인, 한탄강댐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 조례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지금 포천은 이렇다 ㉓ 포천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2010년 전국 최고 학습도시 추진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구축 및 센터 설치

포천시는 오는 2010년 전국 최고의 평생 학습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포천시에 따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통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기간간 혹은 지역사회간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06년 준비단계로 설정하고 평생교육인프라 구축을 실시했다. 기존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시설 등 실태조사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 위한 종합 계획 수립, 전담부서 신설, 법적 근거 마련, 평생교육사 배치, 평생학습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또 2007년 실행단계로 평생학습도시 문화정책을 위해 평생학습정보센터 설치, 평생교육사(전문가) 확충, 평생학습기관시설 및 프로그램, 강사 등 네트워크 구성, 평생학습도시시정 신청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2008년은 평생학습이 사회 구성적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시기로 설정하고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하고 평생학습촉진에 참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오는 2009년과 2010년에는 전국 최고의 평생 학습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2006년 4월 평생 학습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포천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평생학습 시설 및 프로그램 조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발주, 포천시 평생 학습조례 제정, 관내 3개 대학과 교류협력 협약 체결 등을 시행했다. 또 지난 5월에는 2007년 교육 인적자원부 지정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신규 지정 신청을 제출하고 6월 현장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오는 7월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11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개편과 평생 학습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포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학습은 학교시설과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공연장, 대학 및 생활인 등에서 청소년 상담실을 비롯한 건강교실, 취미교실, 여성

들을 위한 제과제빵, 컴퓨터 교실 등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농업인 학습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등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해당된다. 일종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취미교실 혹은 시민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그동안 수요자인 시민중심이 아니라 공급자인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제는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

평생학습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센터, 시민단체 등 학습기관과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지도와 조언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색 사업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사업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움직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광명시가 1999년 3월 9일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함으로써 평생학습 공동체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인천시, 부천시, 구리시,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학습도시란 도시의 총체적 역량을 동원하여 시민의 학습활동과 도시의 활성화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상적인 학습사회로서의 도시를 말한다. 학습도시란 학습도시 만들기 정책과 사업으로 시행되는 인위적인 전략에 의해 구현된다. 즉, 학습도시 사업은 지역중심의 평생교육정책과 지방자치정책이 특정 지역사회에서 만나 전개되는 도시 재발전사업으로 지방자치 행정이다 동시에 지역평생 교육사업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위한 기본틀인 조례제정과 기본용역을 마쳤다”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포천시 지정되면 사업추진이 원활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社 告

불우이웃돕기 창구

본지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직접 성금을 본지에 접수하거나 아래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또 매월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동이체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06월28일까지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성금을 기탁하신 고마운 분들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것은 고마움을 기록하기 위해 서입니다. 또 성금이나 물품을 받으신 분들을 아래와 같이 밝혀서로 돕고 사는 정신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금을 불우이웃돕기 통장으로 계좌 입금하신 분들은 아래 문의

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품을 접수하고자 하는 분들도 미리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동참으로 서로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성금 및 물품접수내역

- 강욱자 들뜸 꽃화원 대표
- 김중현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고문
- 강수동 삼우석재 회장
- 신형숙 포천신문 주부 명예기자단 총무
- 박노현 용아섬유 대표이사
- 송우리지역 노래연습장 모임 김한성 회장 외 회원일동

- 20,000원(자동이체)
- 200,000원(자동이체)
- 200,000원(자동이체)
- 20,000원(자동이체)
- 100,000원(월 정기이체)
- 100,000원(월 정기이체)

- 열린노래방 대표 김영철
- 오아시스 노래방 대표 정동국
- 팝콘 노래방 대표 김진희
- 쉼 노래방 대표 정수환
- 2차 노래방 대표 하춘자
- 돌리노래방 대표 김영찬

- 원 노래방 대표 강수남
- 뉴욕 노래방 대표 윤광숙
- M·S노래방 대표 김한성
- 조팝꽃 노래방 대표 이민철
- 유행가노래방 대표 채경순
- 코리아 노래방 대표 이재정

불우이웃돕기 문의 031-542-1507 계좌: 농협 585-01-015241
(주)한국정보, 포천신문불우이웃돕기 문의 031-542-1507 계좌: 농협 585-01-015241
(주)한국정보, 포천신문

포천지역 신규 골프장 건설 붐 기존 6개에 5개 추가 허가 신청

포천지역에 신규 골프장 허가를 받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신청이나 허가를 신청한 기업체는 모두 5개로 나타났다.

포천시에 의하면 코리아랜드 컨트리클럽은 포천시 가산면 마전리 산 70번지 일원 2,145,528㎡의 면적에 회원제 27홀 골프장 건설을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코리아랜드는 골프장 허가를 받기 위한 도시계획 결정(변경) 제안을 지난해 11월 30일 포천시에 제출한 이후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올 3월 도시계획 결정변경을 받았다.

(주)신세계는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산115번지 일원에 1,484,350㎡의 대중골프장(24홀)과 콘도 100실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올 1월 경기도에 골프장 허가를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또한 파스텔 골프는 포천시 참수면 가양리 산 178-1번지 일원 379,310㎡에 대중골프장 9홀

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제안을 접수하고 올 6월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파인트리 컨트리클럽은 포천시 살운동 산38번지 일원 1,137,567㎡ 부지에 대중골프장 18홀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제안을 접수하고 올 6월 공람공고 했다.

웰뷰 컨트리클럽은 군내면 상성북리 산 24-1번지 일원 1,583,537㎡ 부지에 대중골프장 27홀을 조성하기 위해 올 1월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제안을 접수하고 올 6월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 포천지역 골프장은 모두 5곳으로 일동레이크 GC(18홀), 포천아도니스CC(27홀), 베어리리CC(36홀), 몽베르CC(36홀), 필로스GC(27홀), 베어스타운일대대중 9홀 등이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http://fta.korea.kr

경인 지역 경제의 큰 기회 - 한미자유무역협정

자동차, IT, 휴대폰, 반도체 및 가전 분야와 향만물류 산업...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이 열리며 매출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경인지역의 산업들입니다.

특히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신산업유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 개방의 파고를 함께 넘는 믿음직한 국내 분야별 경쟁력 강화와 지원대책으로 다같이 행복한 선진통상국가로 발전합니다.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행복한 미래의 열쇠는 '경쟁력 강화'

신약개발 지원 등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1조원을 지원하고, 조기개발 품목(정밀화학·정밀기계 등)에 대한 R&D 지원을 확충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제조업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친화적 경영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또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방의 파고를 함께 넘는 든든한 버팀목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추가적인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현실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2~3개년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피해발생 품목으로 확대하고 소득보전 비율도 85%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무역조정지원대상을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무역조정기업 소속 근로자는 물론 주요업종별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잘 사는 농촌', '살기 좋은 농촌'

전업농지원과 농업 경영체 활성화로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 나갑니다.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가 도입되면, 농가로 등록된 주업농의 기준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농이 '살기 좋은 농촌'을 준비하겠습니다. '경영이양직불제'를 현실화하고 '농촌형 역모기지론' 등 다양한 생활안정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